불교는 무소유의 종교가 아니다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⑦ 창고와 집

내가 기억하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은 얇고 담담하게 쓰여진 수필이었다.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베스트셀러였기에 나도 궁금해서 읽어보았다.

특별히 강하게 무엇을 주장한다기보다 스님의 단순 소박한 삶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그게 감동을 주었던 것 같다. 현대인은 무소유의 근처에도 못갈 사람들인데 무소유에 열망하다니 참으로 재미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자기가 소망하지만 실천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열광한다. 시장자본주의의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에 지친 현대인이 무소유를 잠깐 꿈꿔보지만 결코 실천할 수 없기에 무소유를 대신 실천했던 법정 스님에게 열광한 것이다.

사유재산은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며 자본주의 엔진이다. 사유재산은 인간의 이기심에 부합하는 독점적 즐거움을 준다.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사유경제가 아닌 공유경제가 무서울 정도의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우버라는 택시 서비스는 택시 회사의 차가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차를 개인이 운전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따라서 자기의 차를 남과 공유하면서 돈을 버는 새로운 업종이다. 자신의 아파트나 주택에 남는 방이 있으면 남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의 서비스도 확산 일로에 있다. 어떤 지인이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수리해야하는 상황에서 짐을 모두 이삿짐 센터의 창고에 보관하고 수리가 진행되는 1달 동안 에어비앤비의 서비스를 사용했다고 하니 한국에서도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었다.

얼마전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스님의 저서가 동이 났다. 스님이 절판하라고 유언하셨기에 기존 책이 모두 품절되고 사람들이 더 이상 구입할 수는 없었다. 내 친구가 전화를 해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베스트셀러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오래전에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책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기에 친구한테 "도서관에서 빌려 줄까?"했더니 읽는 것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소장하고 싶다는 거다. 그것도 두 권이나 필요하다는 거다. 한 권은 사돈한테 주고 한 권은 자기가 갖고 싶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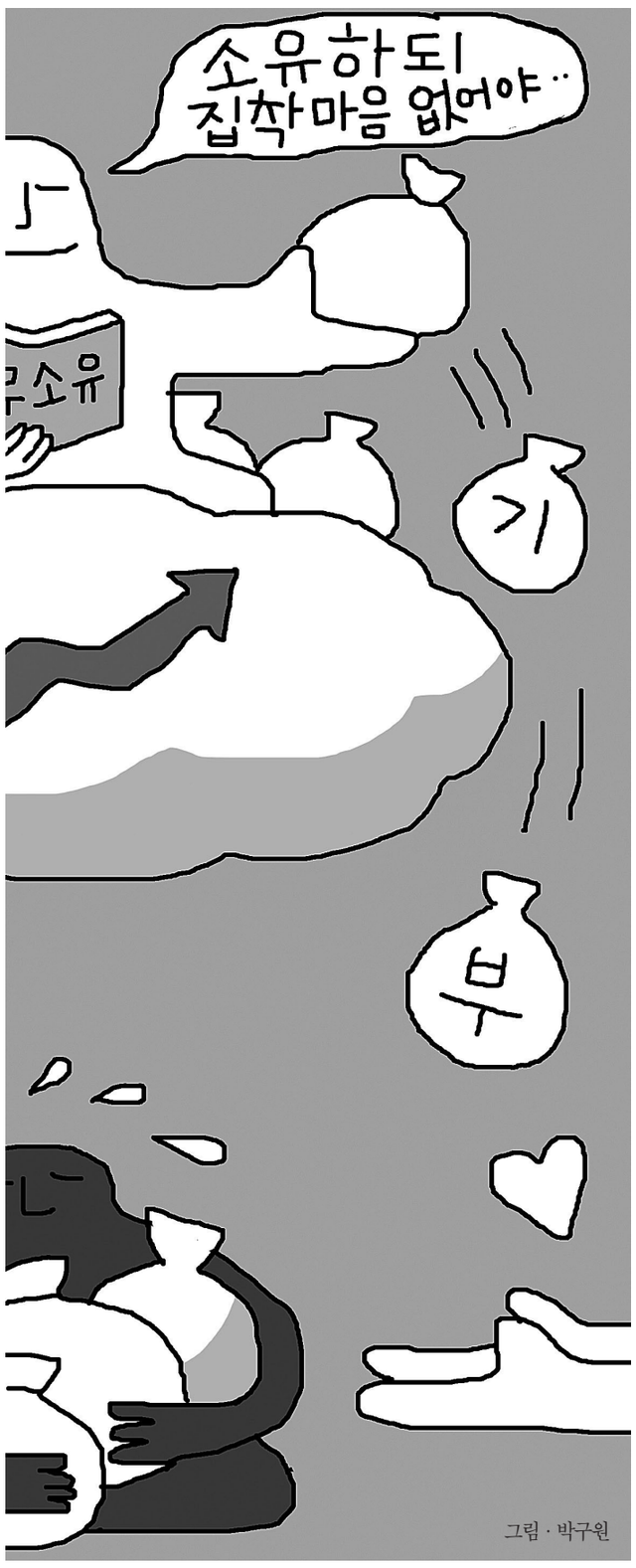
나는 "읽으면 됐지 뭘 소유하려고 해? 그러면 무소유가 아니야. 법정 스님의 책을 읽으면 무소유를 실천해야지"라고 농담을 하고 말았지만 현대인이 무소유에 열망하는 이유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시장자본주의에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형성되고 있지만 사유재산은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볼 때 여전히 매력적인 제도이다. 어린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을 자기 혼자 독차지 하고 싶어하고 남이 갖고 놀려고 하면 뺏으려고 하고 안 주면 울고 떼를 쓴다.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는 한 독점은 인간의 본성이다. 자본주의가 사유재산제도에 기초하므로 경제가 발전할 수록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이 증가한다. 물건이 많아질 수록 삶은 복잡해지고 단순 소박한 삶과는 거리가 생긴다. 이사를 해본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물건을 떠 안고 사는지 안다.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짐을 싸며 우리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이사를 간 뒤에 짐을 풀면서 또 다시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한다. 이사는 우리

인간 소유욕은 타고난 본능
선택 많아질수록 불만 커져
불교는 '소욕지족' 종교
무조건적인 무소유 지양해야

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정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살집을 찾는다기보다 창고와 살집을 동시에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에게 선택의 폭이 넓으면 삶이 더 좋아질까? 수퍼마켓에 가면 수많은 브랜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연구에 의하면 4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할 때보다 10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할 때 후회가 더 크다고 한다. 경제가 풍요로워 질수록 더 많은 선택이 주어진다. 선택이 많아질 수록 후회가 더 크고 그 만큼 불만도 커진다. 삶이 복잡해 질수록 우리는 어느 순간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모든 것을 털어버리면 뜻밖에도 해방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무소유의 위력이다. 현대인은 좋은 차, 좋은 집, 명품 옷, 명품 가방을 끊임없이 소유하고자 불철주야 일하고 잔머리를 굴리기에 삶은 피폐하고 추해지고 피곤해진다. 이럴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훌훌 털어버리면 무소유가 주는 자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현대인은 이런 무소유를 실천할 수 없기에 우리에겐 무소유가 금지된 것이나 다름 없지만 금지된 것을 소망하는 것이야 말로 인간의 로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실천하는 법정 스님을 존경한다.



서양에서는 엘리트 청년이 좋은 직장을 마다하고 시골의 평범한 직장에서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현상이 있다. 봉급은 형편없이 줄었지만 가난한 속에서도 더 행복한 삶을 산다. 이러한 현상을 자발적 빈곤이라 부른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열망하는 현대인의 심리에는 자발적 빈곤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있다.

자이나교와 불교의 5계는 하나만 제외하고 동일하다. 자이나교는 무소유라는 구절이 있으며 불교는 이 구절 대신 '술을 마시지 말라'는 금주 조항이 있다. 원래는 불교가 4계만 있었는데 하나가 추가되어 5계가 되었다고 한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 소욕지족이라는 불교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는 무소유를 지향하는 종교는 아니다. 장아함경은 "재물을 쌓되 적은 데서 시작하라, 마치 여러 꽃을 모으는 벌처럼, 재물은 날로 점점 불어나, 마침내 줄거나 소모됨이 없으리라. 첫째는 먹을 때 족한 줄 알고, 둘째는 일을 하여 게으르지 않으며, 셋째는 먼저 모으고 쌓아, 그로써 구차할 때를 준비하라. 넷째는 밭갈고 장사하며, 목장 만들어 짐승 먹이고, 다섯째는 마땅히 탑묘(塔廟)를 세우고, 여섯째는 절의 방사(房舍)를 일으켜라. 집에 있어 이 여섯가지 업 부지런히 힘써, 잘 닦아 그때를 놓치지 말라. 이와 같이 그 행을 닦는 사람은, 곧 그 집에 손감(損減)이 없고, 재물은 날로 점점 불어나, 바다가 온갖 물을 머금는 것 같으리."라고 설한다. 부처님은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라고 권하신 것이다. 재산이 축적되어 소유가 늘어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

선생경(善生經)에서는 벌이 꿀을 채집하듯이 일한다면 재화는 축적되어 마치 개미둑처럼 높아질 것이라고 설한다. 자이나교에서는 재물을 열심히 모으되 일정 한도를 넘으면 안 되지만 불교는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모으되 보시를 통해 세상에 되돌려주면 된다. 재가자에게는 재물의 축적이 악이 아니지만 부처님은 출가자가 불필요하게 재물을 축적하면 안된다고 금하셨다. 증일아함경은 "만일 어떤 비구로서 능히 아홉가지 법을 성취하면 곧 큰 결과가 있을 것이다.…재보를 쌓아두지 않고, 가사와 바리에 탐착하지 않으며…"고 설한다. 잡아함경도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오늘부터 나무가 필요할 때에만 나무를 구하고, 풀이나 수레나 일꾼이 필요할 때에만 그것들을 구할지언정…"이라고 설한다. 경전을 보면 그릇의 경우 16개를 넘으면 쌓아두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재가자의 경우도 재물의 축적이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면 재물을 축적해서는 안 된다. 중아함경은 "만일 옷을 저축함으로써 곧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더하게 하고 착한 법을 쇠하게 하면, 이러한 옷은 저축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는 말하는 것이다. 어떤 옷을 저축함으로써 곧 착한 법을 더하게 하고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쇠하게 하면, 이러한 옷은 저축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하는 것이다. 옷에 대해서와 같이 음식, 상탑, 촌, 읍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고 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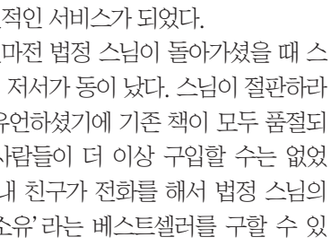
어떤 부자는 그저 돈을 쌓아두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즐거움이다.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는데 오기가 창창해서 종업원에게 몇 천만원 주기 아까워서 수 억원을 쓴다. 부자가 부자가 된 것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희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고 수많은 요인과 조건이 연기화합한 결과이다. 따라서 자신의 돈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은 자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의 말처럼 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전부가 자기 돈이지만 그 이상을 넘으면 세상이 자기에게 맡긴 돈이다. 마윈 같은 기업가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위에 언급한 오기 창창한 못된 부자의 재산은 늘어날수록 나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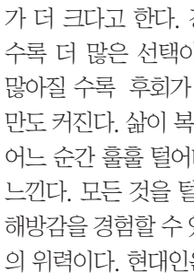
어떤 부자에게 수천억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었기에 충격이 컸겠지만 사실 알고보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세금이 수천억원일까? 세금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지 손실이 나면 한푼도 부과되지 않는다. 수천억원의 몇 배가 되는 이익을 남겼기에 수천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이다. 뜻밖의 세금폭탄을 맞자 그날부터 그 부자는 끙끙 앓고 자리에 드러누웠다. 그 부인이 '여보, 마음 편하게 가집시다. 세금내고도 우리는 부자인데 그까짓 것 내고 말지 왜 그렇게 끙끙 앓아요?' 라고 했다. 그 부인은 부자여도 무소유지만 남편은 무소유가 아니다. 우리는 무소유를 위해 억지로 가난해질 필요도 없고 있는 재산을 버릴 필요도 없다.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소유다. 법정 스님은 선물로 받은 물건을 남에게 주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고 했지만 사실 소유하고 있어도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무소유다.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고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상 것이라 생각하고, 재산이 늘어나도 담담하고 줄어들어도 담담하면 그것이 무소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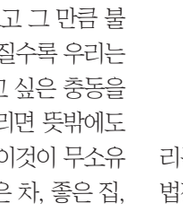
불교 경전에는 얼핏 서로 상반되어 보이지만 결코 모순되지 않는 두가지의 무소유에 대한 견해가 있다. '불설대견고바라문연기경(佛說大堅固婆羅門緣起經)'에 무소유에 대해 설해져 있는데 세 벌의 옷과 발우 하나를 지닐 뿐 나머지는 가지지 아니한다고 무소유를 정의하고 있다. 이런 무소유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관점이다. 삶을 단순 소박하게 유지함으로써 재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다. '관찬경(光讚經)'에서는 무소유를 집착이 없는 상태를 지칭하고 있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전혀 얻을 수 없으니...' 라고 무소유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구태여 법정 스님처럼 있는 물건을 남에게 주어버릴 필요가 없이 물건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무소유다. 그러나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기 전에는 집착을 버리기 어렵다. 따라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처럼 삶을 단순 소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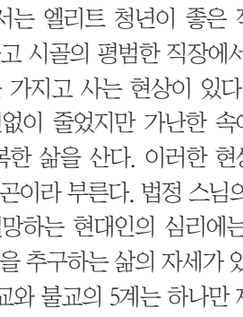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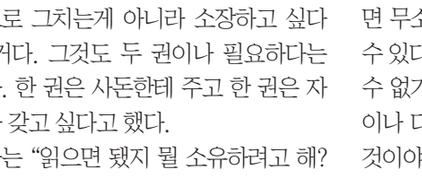
법당의 구형앰프 설비를 "80만원 보상해" 최고급
『800W 파워드믹싱 앰프(USB내장)』 셋트로
단 160만원에 교환 설치 / (월 8곳만 예약순 설치 가능)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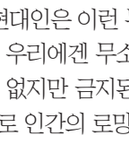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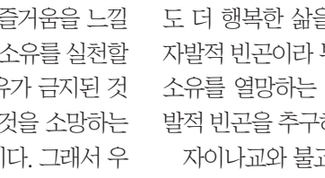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염불용 초고성능 마이크 출시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제 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4월 30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